

동국S&C, 풍력발전 리더로 도약

북미 이어 유럽 윈드타워 시장 진출 ... 고부가 해상풍력으로 확대

국내 최초의 윈드타워 생산기업 동국S&C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풍력발전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.

동국S&C 정학근 대표이사는 8월5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“기존의 북미시장 공략과 함께 풍력발전의 본고장인 유럽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”이라며 “8월 말에는 코스닥에 상장하고, 2013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풍력발전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겠다”는 포부를 밝혔다.

동국S&C는 동국산업에서 업종 분할해 독립한 계열사로 윈드타워 제조와 풍력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200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240억원과 57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4%와 236% 증가했다.

또 DK풍력발전과 한려에너지개발, 신안풍력발전, 남원태양광발전, 고덕풍력발전 등 자회사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에 약 5만평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.

정학근 대표는 “세계 풍력시장이 연평균 31%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 조기진출에 성공해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이 6%, 미국시장은 14%를 점유하고 있다”고 소개했다.

아울러 2012년까지 유럽 현지기업과 협력해 해상 풍력타워 시장에 진출하고, 중대형 해상 구조물과 풍력발전 부품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.

또 “코스닥 상장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초석과 같다”며 “코스닥 상장을 통해 최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하는 해상 풍력발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동국S&C는 7월23일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8월20-21일 공모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05>